

성경 번역이 영국 종교개혁에 끼친 영향

신숙구*

들어가는 말

교회사에 있어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강력한 성령의 역사 이후 기독교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건을 꼽으라면 단연코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인지 중세 유럽사를 공부하는 학자들은 이구동성 유럽의 역사는 종교개혁 전과 후로 나뉜다고 주장한다.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 사회에 살고 있는 많은 현대인들에게는 그러한 학자들의 평가가 다소 낮설고 과하다고 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중세 유럽의 사회를 조금만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면 사회 모든 영역에서 종교의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 당시 교황과 교회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철옹성 안에 그들만의 왕국을 세워나가고 있었고 그러한 권위에 도전하는 자는 왕을 포함해 그 누구라도 용서받을 수 없었다. 이러한 절대적인 종교의 그늘 아래 중세 유럽은 포위되어 있었고 종교개혁이라고 일컬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수 세기에 걸쳐 드리웠던 어둠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종교개혁을 연구함에 있어 대부분의 학적인 관심은 마틴 루터와 유럽대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혁이 그렇듯이 외부에 도움 없이 스스로 완성된 개혁이란 있을 수 없다. 더욱이 자기보다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대상을 향한 개혁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 Malaysia Bible Seminary 교수

필자는 유럽대륙을 휩쓸었던 종교개혁이 유럽대륙이 아닌 영국에서 시작 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그 개혁의 중심에는 성경 번역이 있었다. 즉 성경 번역과 종교개혁은 맞물려 돌아간다. 본 글은 이러한 전체의 단서를 찾기 위해 유럽대륙에서 시선을 돌려 이웃 섬나라 영국으로 향하고자 한다.

1. 존 위클리프

영국의 종교개혁을 논함에 있어 제일 먼저 언급되어야 할 사람은 바로 위클리프이다. 위클리프는 그의 개인적인 삶과 업적보단 많은 이들에게 성경 번역으로 유명한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나 위클리프 성경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실제로 루터나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의 황태자들에 비하면 그에 대한 연구는 터무니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종교개혁의 연구에 있어서도 그의 이름은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또한 종교개혁의 시작이라고 여겨지는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 1517년에 비텐베르크성 교회 대문에 붙여졌기에 14세기 사람인 위클리프는 종교개혁과는 무관하다고 생각될 수 있다. 하지만 위클리프가 “종교개혁의 새벽 별”이라고 불리는 걸 보면 그가 종교개혁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위클리프의 어떤 면이 그를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라 칭호를 얻게 했을까?

위클리프는 1330년경 요크셔셔(Yorkshire)에 있는 힙스웰(Hipswell)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해선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또래 아이들에 비해 뛰어난 글쓰기 능력을 가졌고 나이에 걸맞지 않게 설교 개론서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위클리프가 태어난 14세기는 영국 역사상 가장 암울한 시기였다. 흑사병이 영국 전역을 휩쓸어 전체인구 반에 가까운 희생자를 낳았고 내전으로 인하여 영국 대부분의 지역이 가난과 기아에 허덕이고 있었다.¹⁾ 더욱이 프랑스와 100년이 넘게

1) Carter Lindberg, *The European Reformation* (West Sussex: Wiley-Blackwell, 2010),

지속된 전쟁으로 사회 전역이 불안정하고 강력 범죄들은 날로 늘어 가고 있었다.²⁾ 이렇게 위태로운 시기에도 호위호식하며 지내는 이들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성직자들이었다. 그 당시 성직자들은 다른 이의 구원을 좌지우지 할 뿐 아니라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하게 해줄 수 있는 권위를 지닌 이들로 인식이 되어 있었기에 왕을 포함해 그 누구도 성직자를 견제할 수 있는 이가 없었다. 더욱이 성직자들은 그 당시 전체 영국 토지의 1/3을 소유했을 뿐 아니라 세금에서도 면제가 되었기에 서민들로부터 시기와 부러움을 동시에 받았다. 그러한 절대적인 권력과 부와 명예를 누리는 성직자들이 영적인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줄 리 만무했다.³⁾ 이렇게 기형적인 사회 구조는 약한 자를 더 짓누르고 가진 자를 더 배부르게 하는 불공평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 성직자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어 가고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소홀히 하는 그 어두운 시기에 위클리프는 옥스포드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1346년 16세의 나이로 옥스포드 발리올 칼리지(Balliol College)에 입학하게 된 위클리프는 그 곳에서 신학, 수학, 그리고 자연과학을 섭렵하며 그의 지적 지평선을 넓혀 나아갔고 사회 현상들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비평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학사부터 박사학위 과정까지 모든 분야에서 월등히 뛰어난 실력으로 인해 1372년 박사학위를 받기 전부터 이미 옥스포드를 대표하는 신학자이자 철학자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 당시 최고의 대학으로 인정받는 옥스포드를 대표한다는 것은 유럽 전체를 대표하는 학자로서 발돋움했음을 의미했다.⁴⁾ 그렇게 뛰어난 실력으로 인해 옥스포드에서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앞날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클리프의 마음은 안락한 그의 미래보단 여러모로 비참한 현실을 향해 있었다. 그 중에서도

24-26.

- 2) Harry Freedman. *The Murderous History of Bible Translations: Power, Conflict, and the Quest for Meaning* (London: Bloomsbury, 2016), Kindle edition, ch. 5, "Medieval Conflict."
- 3) Ambassador, *John Wycliffe: The Man of Courage* (Greenville, SC: Ambassador International, 2004), Kindle edition, ch. 2, "Persecution."
- 4) Freedman, *Murderous History*, ch. 5, "Medieval Conflict."

교회의 타락이 그의 맘을 가장 무겁게 했다. 1361년 그가 다녔던 발리올 칼리지에 학장으로 임명이 된 위클리프는 얼마 뒤 학장직을 내려놓자마자 성직자로서 출셋길이 열렸지만 그는 자기 안위를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 교회를 개혁하기로 다짐했다. 또한 그의 개혁의 불씨를 지핀 사건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건 바로 영국 정부와 교황과의 갈등이었다. 교황은 영국 정부에게 한 세기 전 왕 요한이 가톨릭 교회에 헌금하기로 했던 약속을 지키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었고 영국 정부는 그러한 요구를 거부하고 그 누구도 영국 정부와 교회에 간섭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다.⁵⁾ 영국 정부의 완곡한 의지와는 달리 가톨릭 교회와의 갈등이 고조되자 영국 의회는 당대 최고의 신학자인 위클리프에게 조언을 구했다. 위클리프는 영국 정부와 가톨릭 교회 간에 중재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그가 성직자로서 동의할 수 없는 수많은 비리와 어두운 면을 보게 되었다. 가난한 자를 돌보고 명예와 물질에서 자유로워야 하는 교회가 오히려 약자를 멀리하고 권력과 손잡는 것을 보고 분개하였고 그 이후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위클리프가 비판한 가톨릭의 교리는 크게 다음과 같다: 1. 교회정치, 2. 화체설, 3. 성경. 위클리프는 특별히 첫 두 개의 교리를 비판하면서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닌 그리스도이시며 성례식에서의 빵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실체로 변하는 것이 아닌 개인의 믿음으로 예수가 함께 하신다고 주장하였다.⁶⁾ 즉 위클리프는 교회에서 실행되는 모든 의식과 가르침은 성경의 엄격한 잣대에 비추어 재평가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성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굳건히 믿었다.⁷⁾ 그 당시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읽지 못했던 위클리프는 차선책으로 성직자들 가운데 널리 사용되던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기로 결심하였다. 위클리프의 강력한 비판과 개혁의 의지는 교황으로부터 미움을 샀고 대주교들은

5) Ibid.

6) Stephen Lahey, *John Wyclif*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102-134.

7) Diarmaid MacCulloch, *The Reformation* (New York: Penguin Books, 2005), ebook edition, ch. 2, "A Pillar Cracks: Politics and The Papacy."

위클리프를 저지하기 위해 옥스퍼드 대학교에 그를 경질하라고 위협을 가하는가 하면 수많은 종교 회의에 위클리프를 불러서 그의 이단성을 널리 알리자 하였다. 위클리프를 향한 핍박이 고조되고 있을 때 즈음 농부들 사이에서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왕권과 교회에 맞서는 봉기가 일어났다. 위클리프는 성경을 번역하는 것만이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가톨릭 교회 뿐 아니라 영국 상류층도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1066년 노르만 계 프랑스인들에게 정복된 후 영국 상류층에서는 모든 교육을 프랑스어로 받고 일상생활에서도 프랑스어를 사용하였다. 영어는 수 세기에 걸쳐 외면당하고 천민들만 쓰는 언어라는 인식이 강했다.⁸⁾ 이 모든 비난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경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한다는 일념 아래 그는 그의 동역자들과 함께 영어 성경을 번역하는데 온 힘을 다했다.

인쇄술이 아직 발달하지 않은 시기였기에 모든 성경은 손으로 직접 씌어졌다. 1382년에 첫 번째 영어 성경이 완성되었고 드디어 출판되었다. 초판은 라틴어에서 영어로 문자 그대로 직역하여 영어의 어순까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비록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최고의 번역본은 아니지만 마침내 일반 신도들도 성직자를 통해서가 아닌 그들의 눈과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순조롭게만 흘러가지는 않았다. 첫 번째 번역본이 출판된 그 해 런던 블랙프라이어스(Blackfriars)에서 열린 종교 회의에서⁹⁾ 그의 저서와 일부의 설교가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다.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까지 비판한 위클리프의 한 평생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지만 거대한 어둠의 세력에 맞서 그가 꿈꾸던 개혁을 실천해 나갔던 그의 용기와 신념은 역사상 최초의 영어 성경을 일반 신도들의 손에 쥐게 해주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땅에서의 위클리프의 사역은

8) Freedman, *Murderous History*, ch. 5, "Medieval Conflict."

9) 공교롭게도 이 종교회의가 열리는 그 시간 큰 지진이 런던을 강타했다. 우연이라고 치기엔 너무나도 정확한 시간에 일어난 지진으로 인하여 이 사건을 "지진 종교회의"라고 부르기도 한다.

거기까지였다. 1384년 12월 31일 그는 중풍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이 땅을 떠나갔다.

가톨릭 교회는 위클리프의 죽음으로 개혁의 불씨가 사그러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의 추종자들로 인해 위클리프 성경은 급속도로 영국 전역으로 퍼져나갔다.¹⁰⁾ 위클리프의 동료인 퍼베이(Purvey)와 니콜라스(Nicholas)는¹¹⁾ 다소 딱딱한 문체로 씌어진 초판에 비해 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영어로 번역된 개정판을 1388년에 내놓았다.¹²⁾ 가톨릭 교회는 영어 성경의 보급을 막기 위해 1391년 의회에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뿐 아니라 영어 성경을 소유하는 것조차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키고자 하였지만 결렬됐다. 그러자 1408년 주교들이 다시 한 번 옥스포드에 모여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이들을 출교시키는 법을 통과시켰다. 위클리프는 죽어서도 여전히 가톨릭 교회의 증오의 대상이었다. 1427년 마틴 교황은 위클리프의 모든 흔적을 제거하기 위해 그의 무덤을 파내어 남은 뼈조각들을 화형시킨 후 재들을 강에 뿌려 그의 흔적을 없애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까지 민감한 가톨릭 교회의 반응을 보면 위클리프의 업적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력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위클리프는 죽었지만 그 후 그의 위대한 업적과 개혁 정신은 영국을 넘어 유럽대륙에까지 전해지기 시작했다.

1.1. 얀 후스 (Jan Huss)

프라하 카렐 대학교의 학장이자 베들레헴 교회의 성직자인 얀 후스는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다. “종교개혁의 선구자”로 일컬어지는 얀 후스는 1369년 영국과는 전혀 동떨어진 보헤미아 지역에서 태어났

10) Bruce M. Metzger, *The Bible in Translation: Ancient and English Versions* (Grand Rapids: Bakers, 2011), ebook edition, ch. 3, “The Wycliffite Bible.”

11) 퍼베리와 니콜라스는 이 후 이 개정판으로 인해 1415년 감옥살이를 하고 가톨릭 교회로부터 크나 큰 고초를 받았다.

12) Metzger, *The Bible in Translation*, ch. 3, “The Wycliffite Bible.”

다. 그 당시 유럽대륙에도 위클리프가 목도한 성직자들의 부패와 직무유기가 만연해 있었고, 더욱이 보헤미아 지역에선 독일어를 쓰는 소수 상류층이 모든 특권을 다 누리고 있었다. 이러한 불평등으로 인해 서민들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가고 있었다. 젊은 시절 가난을 벗어나고자 들어선 성직자의 길에서 후스는 어느새 사회와 교회의 변혁을 바라는 성숙한 성직자가 되어 있었다. 그렇게 개혁을 바라고 소망하던 와중에 그의 시야에 위클리프의 저서와 설교가 들어왔고 그의 삶 가운데 목직한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했다.¹³⁾ 자기만 홀로 이러한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반세기도 전에 유럽 반대편에서 온갖 꺾박을 무릅쓰고 개혁을 이뤄낸 위클리프의 삶과 가르침은 가뭇에 단비처럼 후스에게 다가왔을 것이다.

위클리프의 사상은 후스의 개혁 운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위클리프의 가르침을 다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후스는 위클리프와 달리 교회조직이나 타락한 성직자들이 행한 예배 의식 자체를 악으로 보진 않았다.¹⁴⁾ 심지어 교황도 예수 그리스도의 법에서 벗어나지만 앓는다면 용인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즉 후스는 단순히 기존 교회를 폐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존 교회를 예수님의 모범과 사도들의 희생을 따라 변화시키는 길을 택하였다.¹⁵⁾ 둘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건 바로 예정론이라는 개념 아래 교회의 정의를 새로 내린 것이었다. 교회란 어떠한 조직이나 눈에 보이는 유형의 건물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개인들이 모인 무형의 모임이라는 것이다.¹⁶⁾ 교회의 조직이나 성직자의 지배권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소수의 특권만 강조하기에 일어나는 수많은 비리와 부패를 막기 위해선 교회론을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했다. 또한 이러한 변화를 대중들로부터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모든 이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13) Thomas Fudge, *Jan Hus: Religious Reform and Social Revolution in Bohemia* (London: I.B. Tauris, 2010), 13.

14) MacCulloch, *The Reformation* ch. 2, "A Pillar Cracks: Politics and The Papacy."

15) Fudge, *Jan Hus*, 38.

16) Timothy George, *Theology of the Reformers* (Nashville: Broadman Press, 1988), Kindle edition, ch. 2, "Wycliffe and Hus."

성경 번역이 급선무였다. 위클리프와 마찬가지로 성경의 권위와 절대성을 인정한 후스는 기존 체코어 성경을 개정하고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을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후스가 내놓은 개정판과 그의 저서는 후대에 체코어뿐 아니라 라틴 알파벳을 쓰는 모든 슬로바키아 언어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¹⁷⁾

하지만 모든 개혁이 그렇듯이 후스의 개혁 또한 얼마 가지 않아 큰 벽을 만났다. 1410년 두 명의 교황이 다스리던 혼란한 시기가 지나가고 새로운 교황 요한 23세가 등극했다. 교황 요한은 자기를 반대하던 이들을 저지하기 위해 십자군 전쟁을 준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불의한 행태를 보고 후스는 개혁의 목소리를 더욱 더 높였다. 1412년 교황은 자신을 정면으로 반박한 후스를 단죄하기 위해 극단의 조치를 취했는데 바로 프라하 내에 모든 성무를 금지하는 것이었다. 성찬식이 금지되었고 더욱이 교회 묘지에 묻히는 것 또한 금지되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후스는 프라하를 떠나 여기저기 떠돌면서 저술 활동에 매진했다. 그러던 중 1414년 그에게 그가 이제껏 외쳐왔던 수많은 교리와 신앙관에 대해 해명할 기회가 주어졌다. 안전이 보장되었고 그 종교회의의 중요성 또한 알기에 후스는 아무런 의심 없이 콘스탄츠(Konstanz)에 도착했다. 하지만 정당한 변호의 기회는커녕 약속과는 달리 그는 도착하자마자 체포되어 감금되었고 무조건 그의 소신을 부인하라는 압박을 받았다. 수많은 그의 동료들이 교회의 요구를 받아들이라고 수없이 설득하였지만 그의 신념은 더욱 더 강해질 뿐이었다. 1415년 7월 6일 성직자 가운데 입을 채로 교회 앞에 끌려 나온 후스에게 옷이 하나씩 벗겨질 때마다 마지막으로 그의 신앙을 부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결국에 후스는 부인이 아닌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 고통을 인내하겠습니다. 이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라는 기도과 함께 화형대로 이끌려가 한 줌의 재로 생을 마쳤다. 그리고 위클리프의 운명과 같이 그의 재도 강에 뿌려져 어떠한 흔적도 이

17) Freedman, *Murderous History*, ch. 5, “Medieval Conflict.”

땅에서 남지 않게 되었다. 후스의 죽음은 그의 추종자들로 하여금 가톨릭 교회에 저항하게 되는 큰 계기가 되었고 그 후 5년이 채 되지 않아 보헤미아 지역에는 후스의 가르침에 기반을 둔 독립 교회가 생겨났다.¹⁸⁾ 후스가 남기고 간 믿음의 유산은 그 후 마틴 루터 종교개혁의 기반을 닦았고 웨슬리 형제 회심의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무엇이 위클리프와 후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을까? 그건 바로 다름 아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이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보다는 전통에 매여 종교 생활을 할 때 위클리프와 후스에게는 말씀에 근거하여 그들의 전통을 재평가하고 비성경적인 전통을 담대히 버릴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었다. 이러한 신념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필연적으로 성경 번역으로 이어졌다. 그 후 성경 번역은 15세기와 16세기를 거치면서 또 다른 양상을 낳았다.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도래로 유럽 전체에 그리스 철학과 고전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헬라어와 히브리어는 어느덧 대학교 교육 과정에 정식 과목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¹⁹⁾ 그리고 이러한 고대 언어와 철학의 재발견은 바로 성경 번역으로 직결되었다. 1488년에 히브리어 구약성경이 최초로 출판되었고 1516년에는 에라스무스가 헬라어 성경을 최초로 출판하였다. 이렇게 성서 원어의 관심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영어 성경 번역에 또 다른 변혁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 중요한 시기에 또 다른 위대한 영웅이 나타났으니 그건 바로 윌리엄 틴데일이었다.

2. 윌리엄 틴데일

윌리엄 틴데일은 1494년 영국 글로스터(Gloucester)에서 태어났다. 그가

18) MacCulloch, *The Reformation* ch. 2, "A Pillar Cracks: Politics and The Papacy."

19) Lindberg, *The European Reformation*, 56.

태어난 시기는 위클리프 시대와 비교해서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이단으로 단죄된 위클리프가 남긴 영어 성경은 영국 정부와 교회의 조직적인 핍박으로 인해 영국 땅에서 많이 사라졌고 위클리프 성경을 읽고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사형이라는 엄벌이 여전히 가해지고 있었다. 그러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위클리프 추종자와 종교의 자유를 갈망하는 이들 사이에선 위클리프 성경이 암암리에 사용되고 있었다.²⁰⁾ 유럽대륙에선 강력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이미 여러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었고 영국 내에서도 새로운 영어 성경에 대한 갈망이 조금씩 싹트고 있었다. 그러한 시기에 언어의 특출한 재능을 가진 틴데일은 옥스포드를 거쳐 케임브리지에서 수학을 하면서 에라스무스의 헬리어 성경과 그 유명한 루터의 독일어 성경을 접하게 되었다. 7개 국어를 말할 줄 알고 헬리어와 히브리어에 능한 틴데일에게는 여러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서 가슴 한편에 식지 않는 열망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원어에서 영어로 제대로 된 번역을 하는 것이었다.

위클리프 성경이 그동안 유일한 영어 성경으로서 영국의 부흥과 개혁에 크게 기여하였지만 라틴어로부터의 번역이라는 태생적 한계가 있었다. 더욱이 문체가 너무나 딱딱하고 고어체로 쓰여져 대중들이 읽고 이해하기엔 너무나 버거웠다. 틴데일처럼 뛰어난 언어적 소질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아쉬움이 더 크게 느껴졌을 것이다. 틴데일은 위클리프처럼 이러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끝이 이미 정해진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했다. 틴데일은 번역일에 착수하기 전 뛰어난 언어학자이자 성직자인 런던의 주교 커쓰버트 톰스탈(Cuthbert Tunstall)을 찾아가 후원과 동의를 구했다. 헬리어와 히브리어에 능하고 에라스무스의 개혁정신을 옹호하는 톰스탈이라면 성경을 원어에서 영어로 번역하고자 하는 틴데일의 꿈에 어느 정도 호의적인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톰스탈은 그러한 틴데일의 제안을 허락하고 후원하기엔 너무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함을 잘 알고 있었다. 더욱이 루터의 독일어 성경이 유럽대륙에 일으킨 파장을 고려해 봤을 때 틴데일의 영어번역이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

20) Freedman, *Murderous History*, ch. 6, "The Murder of Tyndale."

는 불 보듯 뻔했다.²¹⁾ 성경 번역에 가장 우호적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틴스틸의 부정적인 반응에 적잖이 실망한 틴데일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만난다. 런던의 험프리 몬무스(Humphrey Monmouth)라는 사업가가 틴데일의 소식을 듣고 그의 집에 거주하면서 번역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이었다. 몬무스는 그 당시 몰래 유럽대륙에서 루터와 같은 개혁자들의 책을 밀수하여 영국에 공급하고 있었고 틴데일과 같은 개혁파 학자들을 후원해 주고 있었다. 하지만 틴데일의 예상과는 달리 번역은 쉽사리 속도가 나지 않았다. 6개월간 몬무스의 집에 머무는 동안 근처 세인트 던스톤(St. Dunstan) 교회에서 설교자로 섬기는 등 번역에 몰두할 수 없었다. 더욱이 번역을 완성한다 하더라도 영국 내에서는 그의 번역본을 출판할 수 있는 길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²²⁾

틴데일에게는 성경을 번역하는 것 외에 그 어느 것도 그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그동안 꿈꿔 온 대업을 완성하기 위해 자유를 찾아 유럽대륙으로 떠나기로 결심했다. 영국을 떠나기 전 런던에 거주하는 독일 상인들을 만나 교제를 나누며 이들을 통해 유럽에 있는 출판업자와 후원자들을 물색하기 시작했다. 그 당시 런던에서 활동하는 독일 상인들 대부분이 루터의 추종자들이었고 그들을 통해 루터의 저서들이 영국으로 밀반입되고 있었다. 독일 상인들과 몬무스의 도움으로 1524년 그는 마침내 독일로 떠났다. 틴데일이 독일에서 초반에 어떻게 지냈는지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지만 이방인의 삶이 녹녹치 않았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함부르크를 거쳐 여전히 루터의 흔적이 남아있는 비텐베르크에 도착한 틴데일은 윌리엄 로이(William Roye) 라는 영국인을 만나게 되었다. 비텐베르크 대학을 졸업한 로이는 언어에 능한 수도사였다. 틴데일과 로이는 비텐베르크에서 의기투합하여 에라스무스 헬라이어 성경을 기본 텍스트로 번역에 착수하였다. 에라스무스 헬라이어 성경이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그 당시

21) Ibid.

22) Ibid.

그들이 대조할 수 있는 헬라이어 텍스트가 많지 않았다. 신약을 번역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정확히 알 순 없지만 1525년 가을 즈음 인쇄업이 발달한 쾰른으로 옮겨간 것으로 추정된다. 그곳에서 틴데일은 유명한 인쇄업자였던 피터 쾰텔(Peter Quentel)을 통해 완성된 신약성경 번역본을 인쇄하기 시작하였다.²³⁾

하지만 전에 언급했듯이 쉽게 이루어지는 개혁은 없는 법이다. 교황의 통치 아래 있는 쾰른은 런던만큼 개혁에 대한 저항이 심한 도시였다. 틴데일의 영어 성경이 인쇄되었다는 소문은 삼시간에 퍼져 나갔고 독일 정부는 쾰텔을 체포하고 동시에 그의 인쇄소를 폐쇄하였다. 틴데일과 로이는 쾰텔의 체포 소식을 듣자마자 인쇄를 마친 성경들을 모조리 모아서 보름스(Worms)로 떠났다. 그 당시 보름스 정부 관리들은 루터의 종교 개혁에 공감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틴데일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그들의 계획을 눈치채고 그들을 밀고할 수 있는 자들이 어디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틴데일은 믿을만한 인쇄업자를 만나 곧바로 다시 인쇄에 들어갔다. 틴데일은 긴박함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상황 속에서 미처 서문을 쓸 겨를도 없이 1526년 초 신약성경 인쇄를 마쳤다. 하지만 인쇄된 성경책들을 영국으로 들여오는 것이 문제였다. 틴데일은 그의 신약성경들을 영국으로 들여오기 위해서 벨기에 항구도시 앤트워프(Antwerp)에 거주하는 영국인 상인들의 도움을 빌렸다. 그들은 영국으로 수입하는 물건들 사이로 성경을 숨겨 나르기 시작했다. 몇십 개에서 시작한 신약성경은 어느새 몇천 개의 숫자로 늘어났고 영국 전역에 틴데일의 신약성경이 퍼져 나가기 시작했다. 이러한 소문이 추기경 토마스 월지(Thomas Wolsey) 귀에 들어갔고 그는 곧바로 전국 주교들을 소집하여 회의를 열었다. 월지 추기경은 그 당시 부패의 상징이었다. 헨리 왕 다음으로 재산이 많았고 한 명 이상의 아내를 두었으

23) Ray L. Huntington, W. Jeffrey Marsh, "Revisiting William Tyndale, Father of the English Bible," 2017. 8. 24.

<https://rsc.byu.edu/archived/volume-12-number-2-2011/revisiting-william-tyndale-father-english-bible>

며 혼의 자식들도 여럿 있었다. 그에게는 성서번역을 어떻게든 막는 것이 그의 권력을 유지하는 길이었기에 유럽대륙에서 밀반입되고 있는 신약성경을 다 불태우고 혹시라도 이 번역본을 소유하는 자들은 엄벌에 처하기로 결정을 내렸다.²⁴⁾

턴스털 또한 틴데일의 신약성경을 공개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턴스털은 틴데일의 번역본에서 2000개가 넘는 실수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을 뿐 아니라 런던에 있는 모든 서점을 다니며 보이는 대로 틴데일의 성경을 압수하기 시작했다. 그는 틴데일의 성경이 건잡을 수 없이 영국에 유입되는 상황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직접 앤트워프로 떠났다. 그 곳에서 틴데일의 숨은 조력자였던 어거스틴 패킹턴(Augustine Packington)을 만나게 되었고 턴스털의 조급한 마음을 알아챈 패킹턴은 자기가 직접 수소문하여 틴데일 신약성경의 남은 재고를 다 넘겨주겠다는 제안을 했다. 어떻게든 빨리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했던 턴스털은 아무런 의심 없이 앤트워프에 남아있는 틴데일 성경을 모조리 사들인 후 불에 태워버렸다. 하지만 그것은 틴데일의 번역사역의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었다. 패킹턴은 그 돈을 틴데일에게 넘겨주었고 틴데일은 그 돈을 가지고 부채를 갚았을 뿐 아니라 개정판까지 출판하게 되었다. 의도와는 다르게 턴스털이 틴데일의 조력자 역할을 하게 된 것이었다.

1526년 신약성경이 완성된 후 틴데일에게는 또 다른 숙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건 바로 모세오경을 번역하는 일이었다. 틴데일은 여전히 가톨릭 교회로부터 도망치는 신세였기에 어느 한 곳에서 맘 편히 번역하는 호사를 누릴 순 없었다. 낮에는 활동을 최대한으로 자제하고 해가 지면 어둡침침한 방에서 촛불을 의지한 채 밤이 새도록 히브리 성경을 읽고 또 읽었고 가장 자연스럽고 원어에 가까운 용어를 찾기 위해 많은 고민의 날을 보냈을 것이다.²⁵⁾ 모세오경을 완성한 후 그는 요나,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24) Freedman, *Murderous History*, ch. 6, "The Murder of Tyndale."

25) 틴데일이 어떠한 구약 사본을 가지고 번역했는지는 불확실하다. 어느 학자들은 틴데일이 전적으로 히브리 원문에서 번역을 한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 루터의 번역본을 의존해서

역대상하를 번역하였지만 그가 살아생전에 출판되지 못하고 후 일에 그의 동료인 존 로저스(John Rogers)을 통해 마태 성경(Matthew Bible)이라는 성경으로 출판되게 되었다. 그리고 이 기간에 그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신앙(신학)적 신념을 글로 남기기 시작했다. 틴데일의 성경은 상상외로 영국 땅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래서 영국 정부는 그를 체포하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그의 행방이 묘연하자 그 회살은 그를 조금이라도 도와주거나 추종하는 사람들에게로 돌아갔다. 런던에서 그에게 숙박과 여비를 제공한 몬무스가 체포되어 끔찍한 고문을 받았고, 틴데일의 가르침을 따르는 옥스퍼드 학생들이 무더기로 감옥에 갇혔으며, 유럽에서 틴데일와 교제 후 그의 성경 두 권을 반입하다 걸린 성직자 토마스 히튼(Thomas Hitton)은 화형을 당했다. 이처럼 가톨릭 교회는 수단과 방법을 막론하고 수많은 이들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틴데일의 성경 보급을 막고자 하였다.

왜 틴데일의 성경은 이토록 가톨릭 교회를 자극했을까? 그건 바로 틴데일의 번역이 가톨릭 교리를 직접적으로 부정하거나 성직자의 권력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었다. 가톨릭 교회의 구조나 교리는 많은 부분 성경에 근거하긴 보단 오랜 시간 필요에 의해 그리고 전통이라는 명목 아래 생긴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신도들은 오랜 기간 억눌려 있었고 성직자들은 위계 제도의 편승하면서 온갖 특혜를 누리고 있었다. 이 모든 불공평과 부패의 중심에는 성경의 부재가 있었다. 고등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감히 이해할 수 없는 라틴어 성경은 성직자들의 전유물이 되었고 신도들은 그들이 듣고 배운 교리와 가르침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신도들은 눈 뜬 장님처럼 성직자들의 가르침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고 이렇게 기형적인 구조는 성직자들의 부패를 더욱 부추기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했다. 그러므로

번역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틴데일과 루터는 그 당시에 유통되던 같은 구약 사본을 가지고 번역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중요한 구절에서 번역이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루터의 번역본에서 발견된 유사한 용어를 썼다고 해서 틴데일이 원문보다 루터의 번역본을 더 많이 의존했다는 주장은 과하다 할 수 있다.

틴테일에게 있어 첫 번째 개혁의 대상은 다름 아닌 바로 성직자들이었다. 그리고 이 개혁을 성공하기 위해선 어느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여 모든 신도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 임무라는 것을 깨달았다.

틴테일 성경은 크게 두 가지의 업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데 하나는 문학적인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신학적인 업적이다. 문학적인 업적으로 말하자면 틴테일의 용어 선택이나 표현이 원어 본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면서도 누구나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이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영어 성경에서 자주 접하는 “mercy seat,” “Passover,” “scapegoat,” “apple of his eye,” “blind lead the blind,” “Jehovah”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Give to Caesar that which is Caesar’s,” “long-suffering” 같은 표현들은 모두 다 틴테일의 번역에서 나왔다.²⁶⁾ 특별히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의 이야기를 읽고 있노라면 틴테일의 문학적인 섬세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신약에 와서는 사복음서의 번역에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간결한 문체로 번역하면서도 의미 전달에 있어서 소홀히 하지 않는 틴테일의 문학적 균형에 감탄하게 된다.²⁷⁾ 셰익스피어의 문학에 버금갈 정도로 틴테일의 성경이 영문학에 발전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²⁸⁾

그렇다면 신학적으로 어떠한 업적을 이루었을까? 가장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틴테일의 번역이 기존 가톨릭 교회의 수많은 교리와 전통에 반격을

26) Huntington, Marsh, “Revisiting William Tyndale.”

27) Freedman, *Murderous History*, ch. 6, “The Murder of Tyndale.”

28) Donald Coggan, “Spirit, Bible and Preaching Today with Special Reference to William Tyndale,” W.P. Stephenses, ed., *The Bible, the Reformation and the Church*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1995), 82. 틴테일의 영어 성경과 KJV는 후대에 조지 허버트 (George Herbert), 헨리 버건 (Henry Vaughan), 그리고 존 드라이덴 (John Dryden)과 같은 유명한 시인들에게 지대한 문학적 영향을 끼쳤다. 이들의 작품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선 초기의 번역된 영어 성경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정도로 영어 성경 번역은 영문학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가했다는 것이다. 그 누구도 감히 가톨릭 교회에 도전장을 내밀지 못했던 시기에 틴데일의 성경 번역은 교회 전통과 권위의 근간을 흔들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ἐκκλησία*라는 단어를 교회가 아닌 회중 (congregation)으로 번역함으로써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구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믿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나타내었다. 성직자들의 우월성을 강조함으로써 신도들 위에 군림하던 가톨릭 교회에 직격탄을 날리는 번역이라 할 수 있다.²⁹⁾ 같은 맥락에서 틴데일은 *πρεσβύτερος*를 성직자(priest, clergy)가 아닌 장로(elder)로 번역하였다.³⁰⁾ 가톨릭 교회는 신도와 성직자를 확연하게 구별함으로써 말씀을 읽고 전하는 일은 성직자들의 고유의 특권인 양 신도들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을 금하였다. 하지만 틴데일 번역에 의하면 *πρεσβύτερος*란 용어는 일반 신도들로부터 구별된 특별한 계층이 아니라 회중 가운데 선출된 지도자를 가리킨다. 즉 권한(력)이 소수의 성직자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회중에게 있다는 것이다. *μετανοέω* 또한 고해 또는 고행(do penance)하다로 해석하지 않고 회개하다(repent)로 해석했다.³¹⁾ 이걸 무얼 의미할까? 누구든지 죄로부터 용서받기 위해선 성직자에게 자기의 죄를 고하거나 고행으로 자기의 죄를 씻어내는 것이 아닌 바로 예수님께 직접 자신의 죄를 아뢰고 그 죄악 된 행위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면죄부 또한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오히려 성직자들의 배를 채우는 알팍한 상술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틴데일은 1534년에 대대적인 신약 개정판을 내놓았다. 1526년에 출판된 성경에 비하면 4000군데 이상을 고쳤으며 50% 이상의 내용을 헬라어에 충실한 표현들로 바꿨다. 첫 번째 신약성경이 출판된 후 계속해서 틴데일을 체포하기 위한 수많은 시도가 있어 왔다. 하지만 틴데일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지 때마다 피할 길이 열렸다. 물론 틴데일도 쉬운 길이 아예 없었던

29) David Daniell, *William Tyndale: A Biograph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4), 122.

30) Ibid, 148.

31) Ibid.

건 아니었다. 헨리 8세(Henry VII)가 자기 아내 캐서린 (Catherine of Aragon)과의 이혼을 교황에게 요구하였으나 단칼에 거절당하자 가톨릭 교회와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다. 그러한 헨리 8세의 정치적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그의 수석 보좌관인 토마스 크롬웰(Thomas Cromwell)이 교황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틴데일을 영국으로 끌어들이고자 하였다. 헨리 왕의 이혼을 정당화 시킬수 있는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성경 번역이 보장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조건도 틴데일을 만족시킬 수 없었다. 왕의 제안을 거절한 틴데일은 신약성경 개정판이 완성될 즈음부터 앤트워프에 토마스 포인츠(Thomas Poyntz)라는 영국 상인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번역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곳에 헨리 필립스(Henry Phillips)라는 이가 나타났는데 그는 가톨릭 교회의 부름을 받아 틴데일을 잡으려는 악의를 가지고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난 자였다. 필립스는 틴데일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그의 마음을 사고 관계를 형성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어느날 틴데일에게 저녁을 초대한다는 이유로 식당으로 데리고 가던 중 어두운 골목에서 틴데일을 그토록 찾던 적들에게 넘겼다. 수많은 동역자들의 탄원과 구명 운동에도 불구하고 종교 법정에서 이단으로 판결을 받은 틴데일은 1536년 10월 6일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죽음을 앞둔 틴데일은 어떤 생각에 잠겼을까? 아마 성경 전체를 번역하지 못하고 떠나는 아쉬움이 그를 무겁게 짓눌렀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삶과 성경 번역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상상이나 하였을까? 성 감옥에서 끌려나와 빌보르데(Vilvorde)라는 마을에서 화형대에 세워진 틴데일은 화염에 휩싸이면서 한마디를 남겼다고 한다.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바울 서신을 남기기 위해 바울을 최고의 학문으로 훈련시키셨다면 아마도 틴데일에게는 성경 번역을 위해 탁월한 언어적 재능을 주신 게 아니었을까? 헬라어와 히브리어에 능한 틴데일이었기에 가능할 일이었고 그 재능을 자기의 명예가 아닌 교회의 개혁을 위해 남김없이 그리고 죽기까지 선용한 틴데일의 믿음의 유산은 당대는 물론이고 후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얼마나 귀감이 되는가! 틴데일에게는 성경만이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자 교회를 개혁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는데 그의 목숨도 아깝게 여기지 않았다. 한 줌의 재로 변한 틴데일은 그의 손으로 더 이상의 성경 번역을 할 수 없게 되었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되었다. 마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나무가 되고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틴데일의 죽음은 다른 성경을 낳는 결과를 가져왔다. 틴데일이 완수하지 못한 성경 번역을 하나님은 또 다른 이들을 통하여 이어 가셨다. 틴데일의 동료인 마일스 커버데일(Miles Coverdale)은 왕에게 바치는 커버데일 성경을 1535년에 출판하였고 또 다른 동료인 존 로저스는 마태성경이라는 이름으로 1537년에 출판하였다. 이 두 성경 모두 틴데일 성경이라 불려도 무방할 정도로 틴데일 번역본을 기본 텍스트로 사용하였다. 문학적으로나 언어적으로는 틴데일을 능가할 순 없지만 커버데일과 마태성경은 그 나름대로 영어 성경 발전에 기여하였다. 틴데일의 열정과 인내는 성경 번역뿐 아니라 영문학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틴데일 성경은 영어 성경 역사상 전무후무한 번역본으로 자리매김하였다.³²⁾

3. 킹제임스 성경

헨리 8세 이후 영국 교회는 교황의 통제로부터 완전히 독립했고 왕이 영국 교회의 수장이 되었다. 하지만 여왕 메리 1세가 가톨릭을 영국 땅에 다시 부활시키고 개혁파 성직자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하자 많은 이들이 영국을 떠나 제네바에서 그들만의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였다. 이 제네바 성경 작업을 진두지휘한 자가 윌리엄 휘팅햄(William Whittingham)이었는데 그

32) Metzger, *The Bible in Translation*, ch. 3 “English Bibles before the King James Version,”

는 존 칼빈의 처제와 결혼을 하였고 그곳에서 존 낙스(John Knox)의 후임으로 영국인 교회를 목회하기도 하였다. 제네바 성경은 내용 뿐 아니라 독자들의 편의를 고려함으로써 영국에서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제네바 성경이 의외로 선전하자 국교회는 제네바 성경에 상응하는 번역본을 내놓았고 14명의 주교들의 주가 되어 번역이 되어 주교 성경 (Bishops' Bible)이라 불렀다.³³⁾ 그 후 가톨릭 세력이 몰려가고 국교회가 다시 권력을 잡았지만 여전히 개혁교회와 국교회 간의 불협화음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관계가 지속되었다. 서로가 같은 성경을 가지고 다른 교리를 외치는 상황 속에서 성경은 더 이상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전략해 버렸다. 더욱이 영국은 르네상스의 영향으로 사회 전체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었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1533-1603)이 집권할 때 즈음 르네상스 운동이 영국에서도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영국을 대표하는 문학가 셰익스피어 또한 이 시기에 활동하였다. 문학적으로 전례 없는 발전이 있었고 교육의 문은 넓어졌으며 남성 인구 1/3이 글을 읽고 쓸 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교회는 여전히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었다. 여전히 여성들과 노동자 계급들은 성경을 읽는 것이 영국 내에서 금지되어 있었고 교회는 시민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는데 성경을 이용하고 있었다.³⁴⁾

이렇게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스코틀랜드 제임스 6세가 영국의 왕으로 즉위하게 되었다. 제임스 왕의 가장 큰 고민은 다름 아닌 영국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었다. 계층 간의 분열도 점점 심해지고 있었지만 무엇보다 국교회와 개혁교회 간의 분열을 극복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두 교회 간의 상생의 길을 도모하고자 1604년 1월 제임스 왕은 양쪽 지도자들을 햄튼(Hampton)에 초대하여 회담을 개최하였다. 하지만 개혁교회 지도자는 4명만 초대되었고 모든 면에서 국교회가 유리한 분위기로 흘러갔다. 더욱이 초대 받은 개혁파 지도자들도 강성 개혁파는 아니었다. 뚜렷한 합의점을

33) Ibid.

34) Freedman, *Murderous History*, ch. 8, "King James's Bible."

찾지 못하던 중 옥스퍼드 교수인 존 레이놀즈(John Reynolds)가 영어 성경 역사의 길이 남을 제안을 한다. 그건 바로 현존하는 영어 성경을 대체할 수 있고 신 구교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성경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그곳에 참석한 지도자들은 레이놀즈의 제안이 썩 내키지 않았다. 이미 여러 종류의 성경 번역이 있어왔고 무엇보다 레이놀즈가 지목한 기존 번역의 오류는 그리 중대한 오류가 아니었다. 하지만 지도자들과는 달리 평소에 성경연구와 번역에 관심이 많은 제임스 왕은 그 제안을 수용하기에 이르렀다. 더욱이 개혁적 성향이 짙고 왕정 제도의 비판적인 제네바 성경이 영국 내에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사실에 매우 불쾌하였던 제임스 왕은 제네바 성경을 대체할 수 있는 번역본에 욕심을 내었다. 이 제안은 금세 실행에 옮겨졌고 당대에 최고의 히브리어, 헬라이어 학자로 구성된 번역 위원회가 만들어졌다.³⁵⁾ 번역 위원회는 런던 주교인 리차드뱅크로프트(Richard Bancroft)가 지휘하게 되었다. 뱅크로프트가 번역 자체에 큰 관심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맡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바로 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였다. 그 당시 캔터베리 대주교가 임종을 앞두고 있었고 뱅크로프트는 성경을 번역함으로써 왕으로부터 그 자리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결국 뱅크로프트는 1604년 10월 캔터베리 대주교로 취임을 하게 되었다.

번역하는 학자들을 위해 14개의 원칙이 주어졌다. 기본 텍스트는 주교 성경(Bishops' Bible)으로 하되 원어를 최대한 반영하고 주교 성경의 번역이 적절하지 않을 때만 다른 번역본을 참고하라는 원칙이 주어졌다. 또한 히브리어나 헬라이어 용어를 설명하는 거 외에는 그 어떤 주석도 달 수 없었다.³⁶⁾ 더욱이 개혁자들이 선호했던 용어들이 많이 배제되었다. 예를 들어, *ἐκκλησία*를 개혁자들이 번역했던 회중(congregation)이 아니라 교회(church)로 번역하는 원칙을 세웠다.³⁷⁾ 제대로 된 번역이라면 사사로운 이해관계나 특정인의 이익으로부

35) 번역에 참여한 학자들에 대해 상세히 알기 위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David Norton, *The King James Bible: A Short History from Tyndale to Toda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54-61.

36) Norton, *The King James Bible*, 86.

터 자유로워야 하지만 뱅크로프트는 왕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었다. 왕의 권위를 저해하는 용어 대신에 가톨릭 시절부터 쓰이던 용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기로 하였다. 새 번역의 목적은 신, 구교회 간의 화합이었기에 두 교회에 속한 학자들이 모였고 그들 간의 신경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케임브리지, 옥스포드, 웨스트민스터에서 각각 번역하였다. 각 장소에 모인 학자들은 같은 책들을 따로 번역하였고 번역이 끝난 후에는 각자의 번역본을 가지고 서로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의견이 분분한 구절은 최고 위원회에서 결정하였다.

수년간의 번역과 교정 끝에 1611년 드디어 왕이 승인한 성경이 출판에 들었었다. 하지만 번역자의 실수였는지 아님 출판 과정에서 일어난 실수였는지 많은 오타와 오역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여기서 틴데일의 위대함이 다시 한 번 나타나는데 수많은 학자들의 번역과 교정에도 불구하고 신약성경의 90% 이상이 틴데일 성경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³⁸⁾ 틴데일의 번역이 너무나도 완벽하고 매끄러워서 더 나은 번역이 나올만한 여지가 많지 않았다. 왕의 직접적인 후원에도 불구하고 킹제임스 성경은 대중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이미 많은 번역본이 존재하였고 이미 언급한 것처럼 기존 성경을 대체할 만큼의 매력이 없었다. 더욱이 가격이 만만치 않아 교회마다 새로운 성경으로 바꾸길 꺼려했다. 신, 구교회의 분열을 봉합하기 위해 시작된 킹제임스 성경은 원래 목적과는 달리 반 청교도 운동의 일환으로 여겨졌고 왕권을 반대하는 수많은 청교도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제네바 성경이 씌어졌다.³⁹⁾ 특히 제임스 왕의 아들 찰스 1세가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청교도와 국교회의 종교적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까지 국교회의 전통과 정책을 수용하도록 강요하였고 끝내 내전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킹제임스 성경은 두 교파를 하나로 묶기엔 역부족이었다. 찰스 1세는 1649년 국가 반역죄를 이유로 처형을 당하였고 영국은 1653년까지 무정부 상태에서 의회가 다스리게 되었다. 1653년부터 1658년까지

37) Ibid, 87.

38) Coggan, "Spirit, Bible and Preaching Today," 82.

39) Freedman, *Murderous History*, ch. 8, "King James's Bible."

청교도 운동에 우호적이었던 올리버 크롬웰(Oliver Cromwell)이 정권을 잡았고 크롬웰이 왕권에서 내려올 때까지 킹제임스 성경은 빛을 보지 못하였다.

1660년 처형당한 찰스 1세의 아들 찰스 2세가 왕권을 회복하고 다시금 영국 땅에 군주정치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러한 정치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제네바 성경은 점점 영향력을 잃어가고 킹제임스 성경이 표준성경으로 자리를 잡아갔다. 18세기부터는 명실공히 영어권을 대표하는 성경으로 인정되었다. 킹제임스 성경을 완성하는데 있어 어두운 면도 분명히 있고 번역에 부족함도 있지만 여러모로 신학발전과 교회개혁에 끼친 긍정적인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 킹제임스 성경은 여전히 많은 영어권 나라에서 쓰이고 있고 우아한 문체는 아직도 영문학을 공부하는 많은 이들에게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나가는 말

영국에서 일어났던 종교 개혁과 유럽대륙을 휩쓸었던 종교 개혁은 큰 맥락에서 궤를 같이한다. 다른 말로 하자면 다른 두 곳에서 일어난 개혁이지만 그 개혁이 시작된 계기와 동력은 같다는 것이다.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루터의 종교개혁은 독자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시발점이 영국에 있다고 말할 수 있고 그 개혁 중심에 위클리프가 있었다. 위클리프로 시작된 종교개혁은 다른 아닌 성직자들의 부정부패로 인한 것이었다. 절대권력을 누리고 자정 능력을 상실한 교회는 더 이상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지 못했고 그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거대한 악이 되어 버렸다. 위클리프는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믿었고 그러한 개혁의 첫 단추는 바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었다. 즉 성경 번역은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의 열망과 영어 성경의 부재로 인해 촉진된 필연적인 결과였다. 이러한 개혁정신은 영국을 넘어 유럽대륙의

얀 후스에게 전달되었고 마틴 루터에 앞서 종교 개혁의 초석을 닦았다. 틴데일은 위클리프와 루터의 개혁 정신을 계승하였다. 성경의 절대 필요성과 유일성을 깨달은 틴데일은 타고난 언어적 재능을 가지고 성경을 원어에서 영어로 번역하는 대업을 이루었다. 스스로 죽음을 자처하면서까지 남긴 번역본은 킹제임스 성경의 기초가 되었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있다. 마치 사도바울의 고난이 다른 동역자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처럼(빌1:14), 위클리프의 개혁 정신은 얀 후스에게, 얀 후스의 순교는 루터를 거쳐 틴데일에게 개혁을 이어나갈 수 있는 모범이자 동기부여가 되었을 것이다.

모든 이가 꺼려하는 길을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걸어간 원동력은 어디서 나왔을까? 자신의 생명을 성경 번역과 맞바꾸면서까지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무엇이 위클리프와 틴데일을 이 땅이 아닌 저 하늘에 소망을 두게 했을까? 그들의 삶을 공부하면서 위에 질문에 답을 구할 수 있었다. 그들이 남이 걸어가지 않은 길을 걸어간 이유는 바로 성경 외에 그 어떤 것도 예수님께로, 그리고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위클리프와 틴데일은 그들의 성경 번역으로 인해 흔적도 남지 않은 죽음을 맞이하였지만 그 대신 영원한 믿음의 유산을 후대에 남겨주었다. 수많은 성경 번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의 절대적인 가치를 보지 못하고 세속적인 가치에 흔들리는 우리들에게 위클리프와 틴데일의 삶과 죽음은 많은 울림을 준다.

<주요어>

종교개혁, 성경 번역, 위클리프, 틴데일, 킹제임스 성경

<Key Words>

Reformation, Bible Translation, Wycliffe, Tyndale, KJV

* 접수일 2017년 9월 16일, 수정일 2017년 10월 26일, 게재 확정일 2017년 10월 31일

참고문헌

- Ambassador, *John Wycliffe: The Man of Courage*, Greenville, SC: Ambassador International, 2004.
- Coggan, Donald, "Spirit, Bible and Preaching Today with Special Reference to William Tyndale," *The Bible, the Reformation and the Church*, W. P. Stephensed, ed.,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1995.
- Daniell, David, *William Tyndale: A Biograph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4.
- Freedman, Harry, *The Murderous History of Bible Translations: Power, Conflict, and the Quest for Meaning*, London: Bloomsbury, 2016.
- Fudge, Thomas, *Jan Hus: Religious Reform and Social Revolution in Bohemia*, London: I.B. Tauris, 2010.
- George, Timothy, *Theology of the Reformers*, Nashville: Broadman Press, 1988.
- Huntington, Ray L., Marsh, W. Jeffrey, "Revisiting William Tyndale, Father of the English Bible," 2017. 8. 24. <https://rsc.byu.edu/archived/volume-12-number-2-2011/revisiting-william-tyndale-father-english-bible>
- Lahey, Stephen, *John Wyclif*,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 Lindberg, Carter, *The European Reformation*, West Sussex: Wiley-Blackwell, 2010.
- MacCulloch, Diarmaid, *The Reformation*, New York: Penguin Books, 2005.
- Metzger, Bruce M., *The Bible in Translation: Ancient and English Versions*, Grand Rapids: Bakers, 2011.
- Norton, David, *The King James Bible: A Short History from Tyndale to Toda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초록>

성경 번역이 영국 종교개혁에 끼친 영향

신숙구

(말레이시아 성서 신학교 교수)

이 글은 영국에서 일어났던 종교개혁의 발전사를 성경 번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조명하고자 한다. 영국 종교개혁은 주로 헨리 8세 시절 영국 국교회가 가톨릭 교회와 결별을 초래하게 된 일련의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해되어 왔다. 하지만 영국 종교개혁의 진정한 발단은 그보다 2세기 전 위클리프의 성경 번역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위클리프는 가톨릭이라는 거대한 조직과 그 안에 타락한 성직자들의 부정부패를 개혁하기 위해 성경 번역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수 세기 동안 가톨릭 교회는 성경을 성직자의 전유물로 만들었고 성직자 외에 그 어느 누구도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더욱이 성경을 번역하는 이들에게는 죽음이라는 엄벌을 내렸다. 하지만 어떠한 위협도 개혁의 불씨를 끄지 못했다. 위클리프의 개혁 정신은 유럽대륙으로 퍼져 나갔고 루터의 종교개혁의 기반이 되었다. 또한 위클리프가 시작한 개혁은 후대에 틴데일을 통하여 계승되었다. 언어의 천부적 재능을 가진 틴데일은 영어 성경 역사상 최초로 원어에서 영어로 번역하는 대업을 이루었고 그의 번역본은 모든 영어 성경의 모태가 되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씌어진 성경으로 인해 종교개혁은 속도감 있게 진행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특정 집단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에게 들려주었다. 틴데일의 업적은 수많은 다른 영어 성경이 출현하는 결과를 낳았고 킹 제임스 성경을 통해 위클리프와 틴데일이 그렇게 바라던 시대가 도래하였다. 위클리프 한

개인의 결단은 개혁의 불씨를 뒀고 탄테일을 통하여 개혁의 정점을 찍었다. 본 글은 종교개혁의 중심에는 언제나 성경 번역이 있었고 성경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개혁을 이룰 수 있음을 주장한다.

<Abstract>

Bible Translation and Its Impact on the English Reformation

Prof. Sookgoo Shin
(Malaysia Bible Seminary)

This paper examines the development of the English Reformation through the theme of bible translation. The English Reformation has been largely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a series of events that led to the parting between the Church of England and the Roman Catholic Church during the regime of Henry VIII. The real beginning of the English Reformation, however, should be attributed to Wycliffe, who translated the Bible in English for the first time in English history. Wycliffe decided to reform the Church after witnessing the horrendous evil committed by both the Pope and the priests. Wycliffe knew exactly what it took for him to reform the corrupted Church, Bible translation. For centuries, only the clergy had exclusive access to the Bible, and no one else was allowed to read or possess the Bible without facing death penalty. Nothing could stop Wycliffe, however, from making the Bible available for

everyone through translating it into a language that all could understand. Wycliffe's legacy has spread into the European continent and has become the cornerstone of Luther's reformation. Furthermore, Wycliffe's unfinished work was taken up by Tyndale, who was born with a linguistic talent and has achieved something that was considered an impossible task, that was translating the Bible into English from the original languages. His translation has become the basis for all the English Bibles that have come after it and has returned the Bible to the hands of God's people. Tyndale's Bible has helped the English Reformation pick up its pace by allowing people to read the Bible for themselves and to be shaped and challenged directly by the teachings of the Bible. Tyndale's martyrdom has inspired many others to carry on his vision, which was ultimately realized through the publication of KJV. Wycliffe's firm resolution to reform the Church through bible translation has blazed a trail for his successors, and Tyndale actualized Wycliffe's vision of providing the country with a Bible that made sense to the ordinary people. This paper concludes that Bible translation was at the heart of the English Reformation, and the Bible is the only way to the true reformation.

